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문제점 시정 촉구

최서연 전주시의원, 신규 소각장 BTO 방식 배제 의향 등 운영 관한 질의 나서

13일 전주시의회 제41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서연 의원(금암동, 진북동, 인후1·2동·사진)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에 관하여 질의했다.

최서연 의원은 BTO(민간투자사업의 한방식)라는 이유로 방치되었던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시설 전반을 철저히 점검·보수하여 정상화하는 데 앞장서려 한다고 서두를 꺼냈다.

먼저 운영사 변경과 부당 해고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9월 11일 정치권의 중재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정상화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제



결 이후에 이를 빌미로 "악취 개선 공사비 80억 원 등 전체 예산 요구액이 수백억 원 규모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한 합의를 통해 복직된 근로자 11명 중 현재 5명만 남아 있는데 전주시는 과연 누구를 위한 합의문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예산 요청이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전주시가 예산 편성을 강행했다는 점이고 "이런 방식의 예산 집행이 시민들의 세금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 올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다음으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실시협약서를 살펴보면, 전주시는 시설 보수에 대한 예산과 책임이 명확히 협약서에 존재함에도 보수 지시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BTO 방식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모르쇠로 일관했고, 운영사는 적자를 핑계 삼아 손을 놓아 버렸다고 말했다. 이는 2024년 5월 지하 하류조 폭발 사고로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화재 및 폭발 사고 발생 시 "운영사는 즉시 주무관청에 통보 및 보수 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하며, 완료된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보수계획서 및 완료보고서가 제대로 제출되고 확인되었는지도조차 행정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협약서 제9항에 따르면 사업시설의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하에 이를 시행해야 하나 전주시는 이에 대한 보수 지시 및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지난 5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전주시 리싸이클링타

운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명백히 환경법규 및 협약 위반 사항이다. 이는 운영사뿐만 아니라 전주시 역시 '악취방지법'에 따라 해당 시설을 신고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했어야 했어야 했음에도 전주시는 이를 외면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BTO 방식을 적용할 경우 시설 운영권이 민간에 넘어가 지자체는 관리·감독에만 머물 수 밖에 없다. 이는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지자체가 신속히 개입할 수 밖에 없다"며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 사례에서 확인된 운영 문제, 공공성 약화 등의 문제를 모두 고려할 때, 현재 검토 중인 신규 소각장에서 BTO 방식을 배제할 의향이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며 발언을 마쳤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20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서 개최

전주시립합창단(예술감독 겸 지휘자 김철)은 오는 20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주홀에서 '제154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전주시립합창단은 새봄을 맞아 펼쳐지는 공연에서 독일의 슈만, 노르웨이의 올라 아일로, 미국의 다니엘 엘더 등 각 국가를 대표하는 젊은 작곡가들의 봄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연주할 예정이다.

첫 번째 무대는 요정이 인간으로 변해 세상에 내려온다는 동화적인 내용의 슈만의 오라토리오 'Der Rose Pilgerfahrt' 중 세 곡을 발레해 연주한다. 이어 올라 아일로의 'Dream Weaver', 다니엘 엘더의 'Three Nocturnes' 중 'Ballade to the Moon'과 'Lullaby' 공연이 펼쳐지고, 전주시립합창단이 위촉한 바나리 작곡가의 '봄'에 관한 세 개의 창작 합창곡인 '봄길에서'와 '봄비', '내 마음속의 봄'이 초연된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가곡부터 오페라, 뮤지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에 걸쳐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강



혜정의 특별무대도 마련된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은 "봄의 시작을 이변 전주시립합창단의 연주회와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풍성한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찬 봄의 기운을 선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의 입장권은 전석 1만 원으로 나투컬처에서 예매할 수 있다. 예술인패스카드 소지자 및 학생에게는 30% 할인,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게는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김욱기 기자



전주문화재단 미션·비전 선포식.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전주문화재단은 12일 오후 3시,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궁우 전주시의회 의장, 최라기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단 임직원,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문화재단 미션·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전주제일로타리클럽, 안전지팡이 지원 위한 성금 기탁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제일로타리클럽(회장 박비오)은 12일 전주시 중앙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구보조금사업으로 어르신 보행안전을 위한 안전지팡이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성금 440만원(지팡이 400개 상당)을 기탁했다.

중앙동주민센터(중앙 이향란)는 이번 기탁으로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반사스티커



가 부착된 지팡이를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박비오 회장은 "이번 안전지팡이 지원 사업을 통해 걸음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돕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향란 중앙동장은 "중앙동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앞장서 주시는 전주제일로타리클럽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이웃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 긴급 현혈 요청 동참

전북 지역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모인 현혈 참여자들의 열정을 보였다. 신천지지원봉사단 전북지역연합회(연합회장 최종일·이하 전북지역연합회)가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 혈액원(이하 전북혈액원)의 긴급 현혈 요청에 동참했다.

지난 달 전주지부에서 시작된 현혈은 이날 7일까지 군산·익산·정읍지부까지 각 지부에서 차례대로 이어졌다. 전북혈액원 측은 "그동안 코로나 시국에서도 전북지역연합회가 적극적으로 현혈에 동참해줘 위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유기철 전북혈액원 현혈개발팀장은 "혈액 적정 보유량은 5일분이지만 현재 혈액 보유량은 4.9일분 정도"라며 "지난 1~2월에는 3~4일분 정도로 부족했었는데 이번에 전북지역연합회에서 동참해 줘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최종일 연합회장은 "현혈은 두 번째 삶을 선물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의미가 깊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지속적으로 현혈에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김욱기 기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전주시, 1050명에 48만원 상당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는 올해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과 산모의 영양 관리를 돕기 위해 1050명을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9만6000원을 자부담하면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임산부 전용 주문물에 48만 원의 포인트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임신부가거나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대상자는 1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에코이볼(www.ecoemail.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동일 자녀에 대해 임신부일 때 지원받았던 산모,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사업과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오는 4월 초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임산부전용 주문물 회원가입과 주문 방법을 임산부에게 안내해 건

강한 친환경농산물(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유기 수산물 포함)과 유기가공식품(유기무농약 원료 가공식품)을 거주지까지 편리하게 배송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업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맡게 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농산물과 가공품을 신선행하고 안전하게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농업인과 지역업체의 판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총 1053명에 4억5200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했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아이와 엄마를 위한 건강먹거리를 지원해 행복한 출산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저출산 시대 임산부를 위한 세심한 지원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공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논란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들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